■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1-66.
http://doi.org/10.17948/kcs.2019..82.41

【특집: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

申維翰의 자술 문학에 나타난 자기 형상과 명명 방식*

하지영(河志英)**

목 차

1. 서론
2. 신유한의 자술 문학에 나타난 자기 형상—경계에 선 客
3. 신유한 자술 문학의 자기 명명 방식과 그 지향
4. 결론

국문초록

신유한의 자술 문학은 모순된 정체성을 가진 조선 후기 지식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흔들리는 자신을 견고하게 잡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자술 문학, 술회시에서는 "객"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대와 좌절 속에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길 위에 선 신유한의 초상을 보여준다.

신유한은 "龍門", "景雲" 등으로 자신을 새로이 명명하면서 흔들리는 내면을 다잡고 삶과 문학적 지향을 확인해 나갔다. 독특한 것은 신유한의 이 명명이 司馬遷과 崔致遠의 삶과 문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유한의 자술 문학은 점차 구체성, 현장성이 확보되지만 여전히 외부인에 자신의 형상을 투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

* 근역한문학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주관한 2018년 추계 기획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해주신 김하라 선생님과 심사 선생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는 이후 沈魯崇, 金鑢 등의 자술 문학과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학론에서 확인된바, 眞, 我로 향한 시선을 내장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전범을 버리지 못한 그의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신유한의 자기 명명은 기존의 사회적, 문학적 관념의 틀로써는 자신, 문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진지한 고민을 보여준다. 그의 명명은 주변의 비난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가 인식하는 자아, 지향이 사회적 인식과 충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용문", "경운"이라는 명명은 "객"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시키려는 신유한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주제어: 자술 문학, 술회시, 신유한, 자아, 최치원.

1. 서론

전근대 지식인들은 자신을 즐겨 명명하였다. 자호를 짓거나 자신의 거소, 문집 등을 직접 이름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문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하면서 자신을 새로이 명명하였다. 물론 자신의 거처, 주변의 자연물 등 사실적인 정보를 이름에 단순히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술 문학[1]에서의 자기 명명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더욱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름을 반복하고 이에 대해 해명하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작자의 내면과 지향이 드러나게 된다. 이 명명을 통해 사회,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자신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나를 오롯이 세우려는 의지가 발견되기도 한다.

본고는 그 대표적 사례로 申維翰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유한은 18세기 문제적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영남 서얼 출신 장원급제자라는 모순된 정체성을

1) 자기서사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익히 통용되지만, 서사라는 진술 방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자기서사"는 한문학 전통 내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자신을 성찰하고 노래하는 문학까지 포괄하기는 어렵기에 본고에서는 "자술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자술 문학"과 관련된 논의는 심경호, 「일본의 자술문학 전통에 관하여」, 『民族文化硏究』 제7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0-11면 참조.

지닌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강한 자의식, 복잡한 내면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숨기지 않고 문학 내에 쏟아내었다. 자신의 문학 세계를 해명하는 글쓰기를 반복하였고[2] 지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일상, 불평한 심사를 빈번하게 노출하였다. 또 지나온 삶을 관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성찰하는 장편시를 다수 창작하였다.[3] 이들 작품에서 신유한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하며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거나 일정한 명명을 통해 자신의 삶과 문학적 지향을 드러내었다. 그의 자술 문학에 나타난 자아형상과 명명 방식에서 18세기 한 지식인이 처한 문제적 상황과 그에 따른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일찍이 『해유록』 연구와 함께 신유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는데, 그중 신유한의 삶과 사유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숙은 서얼 문학이라는 경계 내에서 신유한 시문에서 감지되는 자의식과 불우감을 논하였으며, 이종호, 심경호는 신유한의 사유방식, 특히 도불 사상과 현실 비판 의식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4] 본고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유한의 자술 문학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자술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자기 형상을 통해 그의 내면을 살펴본 다음, 자기명명 방식을 중심으로 신유한이 지향하고자 했던 삶과 문학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신유한의 자술 문학에 나타난 자기 형상—경계에 선 客

신유한은 문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시는 마음의 소리

2) 申維翰, 「自叙」, 『青泉集』 續集 卷2; 「抽懷賦」, 『青泉集』 卷3; 「與任正言論文書」; 「叙與尹太學士論文事」, 『青泉集』 卷6.

3) 申維翰, 「丁亥歲暮病蘊 謝諸友以書問訊」, 『青泉集』 卷1; 「長歌行」, 『青泉集』 卷1; 「竹林風雨歌」, 『青泉集』 卷1; 「到郵亭留歡數日 將向嶺南 自叙道里游觀 因寫平生心素 得八十韻 留奉孫督郵」, 『青泉集』 卷1; 「憶同遊五十韻 寄贈元秀才 景夏字華伯」, 『青泉集』 卷1; 「靈川館 奉李學士 廷濟 夜話有述 四十韻」; 「春夜海上 咏崔士集山有花歌 感別多懷 因得六十韻」; 「野城作客 牢愁鬱結 自叙平生 六十韻」; 「書情四十韻 奉李季鷹 兼懷士集」; 「復用前韻述懷續呈士集」, 『青泉集』 卷2; 「遊攢翠巖 遣悶述懷 五十韻」; 「景雲齋偈」; 「景雲齋歌」; 「抽懷賦」; 「寄洞陰任使君 璐 五言十絶」.

4)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13-396면; 이종호,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313-358면; 심경호, 「申維翰의 통섭적 사유방법과 문학세계」, 『漢文學論集』 제28집, 근역한문학회, 2009, 59-89면.

(心聲)"라고 정의하며[5] 외부의 경물이 작자의 내면에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소리로 발현되고 이것이 또 다른 이의 내면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성"은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30대 중반 서울에서 고령으로 돌아와 조용히 삶을 보내려고 해도 복중의 詩書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6] 이러한 "고질병(痼)"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는 자술 문학 창작을 이끌어내었다.

그의 자술 문학, 특히 술회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이미지는 바로 "객"이다. 술회시 중 많은 작품이 길을 가면서, 혹은 객지에 머물며 지어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실제 그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세의 꿈을 안고 그는 밀양, 고령의 집에서 수차례 서울을 향해 떠났으며, 또 일본 사행을 가며, 지방관으로 임용되면서 길을 걸었다. 그는 길 위에서 자신의 내밀한 감정, 복잡한 내면을 노래하였다.

그중 「今日行」(『靑泉集』, 卷1)은 총 9수의 연작시로 젊은 시절 신유한의 여정과 귀환의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이라는 인물이 경험하는 생활, 내면의 변화를 노래하는 서사 구조를 지녔다. "3년간 경화생활을 했다(三歲客長安)"는 시구를 볼 때, 이 작품은 신유한이 성균관 생활을 정리하고 낙향했던 29세 이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 오늘 말 타고 가는 객
> 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지
> 집을 떠나 만여 리를 가니
> 한 번 이별에 고향과 뚝 떨어지고 말았구나.
> 뜬 구름 훌쩍 지나가는데
> 한강에는 돌아가는 나루터가 없네
> 새들은 소매를 스쳐 날아가는데
> 물고기는 구덩이 속에 갇혀 있구나 (…)

---

5) 申維翰, 「題楚詞卷末」, 『靑泉集』 卷6. "詩心聲也. 今夫物華之征吾心, 而觸之爲聲, 芒芒乎反入於心, 喜者蹈舞, 悲者涕泗, 其斯之異於慤音, 而可以興可以羣且怨乎哉."

6) 申維翰, 「與崔士集書」, 『靑泉集』 卷3. "是僕終於陰谷之株, 而不復見春日載陽, 寧欲乞耜持耒, 旦從南畴傭耕兒, 以角寸陰. 而腹中詩書又怒而雷鳴, 所以使我艱虞, 皆是物也. 恐一朝砭痼, 化作狂疾."

今日馬行客, 愁思難具陳. 棄家萬餘里, 一別胡與秦.
浮雲忽已徂, 江漢無歸津. 交交袂上禽, 沾沾窖中鱗. (…)

1수는 고향을 떠나 상경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조망하며 시작하고 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오른 상경길이지만 수심만 가득할 뿐이었다. 긴 여정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오늘 고가를 몰아
장안 거리로 떠나네.
장안은 어쩌면 그리도 화려한가
의관이 성대하게 늘어섰네.
금옥 같은 용모는 귀태가 흐르고
문식이 층층 전각에 입혀졌도다
높은 누대에서는 날마다 가무를 하고
화려한 말은 콩과 조를 실컷 먹네
흔들흔들 명리를 쫓는 객
몸을 굽혀 급급히 나가네
명함 품고 대궐 문 앞에 서서
해 기울도록 밥을 먹을 여가가 없네
전분, 두영이 번갈아 권력을 빼앗으니
이 무리 영달과 쇠락이 교차하네
번화는 인색해서 머물지 않으니
귀신이 고명한 집을 엿보네 (…)

今日策高駕, 去上長安陌. 長安一何麗, 衣冠盛簇簇.
金玉貌生貴, 文餙被重閣. 高臺日歌舞, 珂馬厭菽粟.
搖搖名利客, 俯身行逐速. 懷刺立君門, 日昃不遑食.
田竇有相奪, 此輩以榮落. 繁華吝不留, 鬼瞰高明屋. (…)

2수는 서울의 풍경을 노래하였다. 객은 도성에 들어서자마자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실감하게 된다. 문물이 풍부하고 사치가 넘치는 곳, 신유한은 그곳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自嘲하였다.[7] 하지

7) 名利客, 懷刺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2수의 객은 신유한 자신을 그려낸 것으로

만 경화의 사족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전망은 어둡다. 객의 좌절감은 곧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전환된다. 前漢 때 권세가였던 전분과 두영의 전고를 통해 경화사족들이 무분별한 당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소하였다.

이후 객은 북망산에 올라가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출세에 집착하지 말고 고향에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3수) 이후 비로소 귀향하여 빈객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지만(4수) 출세에 대한 꿈은 쉽사리 정리되기 힘들다.

(…) 노래가 끝나니 슬픔이 지극하여
사방 좌중이 각각 술잔을 멈추네
객은 무엇을 원망하고
객은 무엇을 힘들어 하는가
객은 본래 원망하는 것이 없고
객은 또한 힘들어하는 것이 없소.
3년 동안 장안에서 객지생활을 하면서
거문고를 헛되이 가져왔을 뿐

(…) 樂極哀卽至, 四坐各停觴. 問客何所怨, 問客何所傷.
客本無所怨, 客亦無所傷. 三歲客長安, 一琴空作裝.

5수는 객이 연회에서 淸商曲을 연주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객으로 존재하며 즐거운 연회 자리에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강개한 그의 연주에 좌중은 함께 슬퍼하며 그 까닭을 묻는다. 객은 그의 원망, 상처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서울 생활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답한다. 기회의 땅으로 생각했던 서울은 도리어 그에게 절망만을 안겨줬을 뿐이다.

객의 마음을 달래며 명리를 쫓지 말라고 주인이 경계하자(6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좇을 것을 다짐하며(7수) 세월의 흐름을 담담히 수용하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금일행」 전체가 상경과 귀환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 또 뒤에 살펴볼 「추회부」에서 서울에서의 삶을 "名聲之遊"로 요약한 것을 볼 때 2수는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 결심하였다.(8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를 그리워하며 그의 편지를 읽는 장면(9수)으로 「금일행」은 마무리된다.

물론 「금일행」은 자신을 객으로 타자화하고 전고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유한이 경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그가 여정과 귀환에서 겪었을 감정의 굴곡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실제로 신유한은 청운의 꿈을 안고 소론, 노론, 소북 할 것 없이 자신을 알리고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였지만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는 좁은 한양에서만 관료를 배출하는 현실, 심지어 특정 당파에 속한 인재만 등용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木覓山記」) 젊은 시절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신유한은 고향에서도 마음을 붙이기가 힘들었다. 그의 지기인 최성대에게 보내는 시에서 "친척이 와서 비웃고 처자식 또한 상심하여 바라본다.(親戚來相笑, 妻兒視亦恫)"라고 하며 가족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괴로울 따름임을 고백하였다.[8] 서울에서나 고향에서나 그는 나그네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삶의 경험, 좌절감이 「금일행」에 반영되어 있다.

신유한은 이와 같은 장편 술회시를 평생에 걸쳐 쓰는데, 점차 자신의 삶을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野城作客, 牢愁欝結, 自叙平生, 六十韻」(卷1)은 그가 문과 급제한 이듬해인 1714년에 지금의 영덕을 지나며 지은 것이다.

> 사방 천지 드넓은데
> 동해에 홀로 가는 나그네.
> 거친 파도는 악어의 기세를 띠고
> 뇌우는 숨은 용의 신묘함을 지녔구나.
> 유생 옷을 걸쳤으니 길가 아이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 시 담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니 속객들이 꾸짖는다
> 곤궁함이 뼛속까지 사무침을 익히 알아
> 입술로라도 웃는 일이 드물다네.
>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어리석은 마음에 멋대로 굴었고

8) 申維翰, 「春夜海上, 咏崔士集山有花歌, 感別多懷, 因得六十韻」, 『靑泉集』 卷1.

현실에서 벗어난 말을 자주도 했지.
열셋에는 고서에 통달했고
열여섯에는 성군의 도래를 갈망하는 시 읊었지
문장은 진나라 분서 이전 수준이라 인정받고
사는 굴원의 수준을 기약하였지.
갑 속에 보관한 거문고로는 우아한 백설 곡을 연주하고
구검은 푸른 하늘에 머물러 두었지[9] (…)

四顧乾坤大, 東溟獨旅人. 波濤鰐魚氣, 雷雨蟄龍神.
儒服街童恠, 詩囊俗客嗔. 細諳窮到骨, 稀得笑開脣.
憶昨癡腸肆, 當時濶語頻. 十三通竹簡, 二八詠苓榛.
文許秦灰上, 辭期楚水濱. 匣琴調白雪, 綵劍逗蒼旻. (…)

시는 객이 동해의 어느 길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유복에 시주머니를 찬 그의 모습은 야성 시골 동네에서 더욱 오활하게 보인다. 여기에서도 그는 현실에 어울리지 못하는 객일 뿐이다. 마음 가득한 수심에 그는 웃을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본다. 어릴 적부터 그는 총명하여 문장은 선진시대를 기약하고 사는 굴원에 필적할 정도였다고 하며 자신의 문재에 자부심을 표하였다.

태평성대 덕분에 장원급제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조정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권세가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힘들었다. 그는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였다. 아름다운 경물은 자괴감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는 "이 내 생 유배객도 아니건만 어디를 간들 유랑민이 아니랴(此生非謫客 何往不流民)"라며 울분을 토하였다. 그의 삶은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한 것일까.

(…) 기운은 강산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하고
정신은 해와 달빛을 놀라게 하니
신령은 점점 노하고
뭇 귀신은 더욱 화냈지

9) 심경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495-508면의 번역을 참조, 수정하였다.

곤궁함과 근심만 쌓이게 하니
어느 누가 품은 뜻을 펼 수 있으랴
관문을 닫은 양자는 곤궁하고
다리 기둥에 글 적었던 사마상여는 가난했다네. (…)

(…) 氣奪江山秀, 精驚日月淪. 巨靈心轉怒, 羣鬼目逾瞋.
但使窮愁積, 誰敎志意伸. 閉關楊子困, 題柱長卿貧. (…)

그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구한 끝에 "문장은 액운을 이르게 하는 법(文章厄運臻)"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뛰어난 문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만들어 신령과 귀신의 분노를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이 현실에 부딪쳐 결실을 내지 못하고 그의 좌절감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그는 진단하였다. 문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드러난 부분이다.

(…) 가자꾸나! 고향 그립네
돌아가자! 타향에서 한탄하네
사람 시켜서 언덕의 밤나무를 마름질하게 하고
함께 시냇가 채소를 캐리라고 약속 했으니
비 내리는 밭두둑에서 도롱이 삿갓 쓰고 일하고
안개 낀 낚시터에서 낚시를 드리운다.
인생 백년의 편안함이 오직 임금님 덕택이니
따스함을 풍신 궁궐에 바치노라

(…) 去矣吟成越, 歸歟歎在陳. 預令栽岸栗, 相約采溪蓴.
雨畝簑兼笠, 烟磯釣有綸. 百年唯帝力, 炙背獻楓宸.

이러한 불행에 그는 출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결국 고향에 돌아가 은거를 선택하게 된다. 작품의 후반부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을 그린 다음, 태평성대를 칭송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된다. 이러한 종결은 갑작스럽게 느껴지며 전반부에 노출된 울분의 목소리와 불협을 이룬다.

이 시기 신유한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은거에 대한 의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그는 문과 급제한 후 분관되기를 초조하게 기다

리며, 洪致中, 元命龜 등 당시의 유력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자신의 뛰어난 문재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1714년에 신유한은 영덕에서 영주로 가 원명귀의 아들 元景夏를 데리고 상경하는 길이었다. 결국 「야성작객」은 좌절과 울분, 은거에 대한 의지를 과장하며 자신의 문재를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장된 이미지일지라도 좌절감과 기대심리가 뒤섞여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화상은 바로 신유한 그 자신을 반영한다. 여전히 전고, 상징을 과다하게 사용하지만 이 작품은 앞선 「금일행」에 비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유한의 나그네 의식은 세월이 흘러도, 관직에 있을 적에도 변하지 않는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좌절감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보다 더 조응한다. 59-63세 사이 연천 현감으로 머물며 지은 「遊攢翠巖, 遣悶述懷, 五十韻」(卷2)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봄이 와 꽃망울이 맺혔는데
> 서리가 떨어져 비단이 도로 펼쳐졌네
> 이곳은 은거하기 알맞은데
> 어떤 이가 초가집을 지을까.
> 게으른 마음에 울분이 생겨
> 가는 곳마다 탄식하네
>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나무 인형
> 재주가 우활하여 버려진 나무가 되었네 (…)
>
> 春來花定繭, 霜落錦還舒. 此境宜棲遯, 何人擬結廬.
> 懶心生欝怫, 因地得欷歔. 跡遠今漂梗, 材迂是棄樗. (…)

이 시는 찬취암을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찬취암은 연천의 동쪽 寶蓋山 남쪽 기슭에 위치한 암벽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맞이하여도 은거할 수도 울결을 해소할 수도 없다. 신유한은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표류하는 나무 인형, 버려진 나무로 형상화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봉상시 첨정, 연천 현감에 제수되었지만, 그의 성에 차지 않는 자리였다. 임금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 연천에 부임하였는데 이곳의 상황은 참담할 지경이었다.

(…) 아전은 궁핍해 몸에 이가 생기고
군졸은 말라 등에 구더기가 생겨나네
분주한 사절에 격문을 옮기고
부엌을 긁어 사신을 대접하네
백성을 살펴보니 눈물이 날 지경
눈에 가득한 것은 병폐로구나
곳집을 다 털어도 구호하기 근심스럽고
장부가 비었으니 무슨 수로 마련하나 (…)

(…) 吏窮形作虱, 軍竭背生蛆. 織路趁公檄, 爬廚餉使車.
察眉堪涕淚, 滿目見瘡疽. 廩盡愁調度, 籌空奈拮据. (…)

신유한은 지방 수령으로 나가면서 목도한 지방 관아의 열악한 환경, 가렴주구의 현실을 「送金若礪赴任長沙序」, 「與崔士集書」 등의 글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한 바 있다. 위의 시는 자신의 삶을 노래하며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실의 병폐는 그의 번뇌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금일행」이나 「야성작객」에서 전고를 통해 에둘러 현실을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구체적인 현장을 보여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시 역시 앞서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름다운 풍경과 현실의 궁핍함이 모순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신유한은 가야산에 은거하고자 했던 지난 결심을 떠올린다.[10] 이처럼 신유한의 술회시는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시선을 내장하고 있으나 결국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는 술회시뿐 아니라 민생의 삶을 중심 소재로 삼는 장편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예컨대 「祖江行」은 가뭄으로 피폐해진 민생의 삶을 노인의 입을 통해 고발하는 작품인데, 마지막 구에서 "민생이 다 시들어 빠짐을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어찌 나만 홀로 가야 몇 두렁 밭에 농사짓고 있지 않나(坐思民生凋弊盡, 吾獨胡爲不種伽耶數畝田.)"[11]라고 하며, 은거에

10) 申維翰, 「遊攢翠巖, 遣悶述懷, 五十韻」, 『靑泉集』 卷2. "萬古伽倻洞, 孤雲學士居. (…) 古賢稱逝者, 吾道曰歸歟."

대한 결심을 갑작스럽게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신유한의 문학에서 자주 포착되는 개인적인 세계로의 도피는, 자신의 의지로 현실의 병폐를 극복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서 기인한다.

신유한은 서얼이라는 신분적 경계, 그리고 지방과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자였다. 서얼 문사들이 불우한 심사를 토로하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겠지만, 영남 서얼 출신 장원급제자라는 모순적 정체성을 안고 기대와 좌절에 부대끼며 평생을 보내야했던 신유한은 장편 술회시로 자신의 삶을 반복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객"은 이상과 현실이 상호 위배되는 상황에서 표류하며 삶의 주체로 정립하지 못한 신유한의 내면을 보여준다.

3. 신유한 자술 문학의 자기 명명 방식과 그 지향

신유한 자술 문학의 특징적인 지점은 자신의 불우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삶과 문학적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목소리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신유한은 일정하게 스스로를 명명하며 자신의 지향을 구체화하고 흔들리는 내면을 다잡아 나갔다. 30세 전후작 「抽懷賦序」와 만년작 「景雲齋歌」, 「景雲齋偈」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장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명명 방식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신유한의 지향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龍門, 문학에 대한 포부

신유한은 문학에의 욕망과 자부심이 남다른 인물이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문학에 대한 열정, 재능을 빠지지 않고 언급하였으며, 또 자신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해명하는 글쓰기를 남기기도 하였다.(「自叙」) 특히 젊은 시절 자술 작품에서는 문학에 대한 자부와 포부가 강하게 나타난다.

「竹林風雨歌」(卷1)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30대 초반 밀양에 거주하였을 시기 작품으로 추정한다. 밀양 대나무골에서 태어난 신유한은 대나무를 무척 좋아하여 자기 거처에 100여 그루를 손수 심어 대숲을 더욱 무성하게 만들

11) 申維翰, 「祖江行」, 『靑泉集』 卷2.

었다.[12] 이 시의 화자는 대숲을 거니는 野夫, 즉 신유한이다. 겨울 바람에 대나무는 전장에서 울리는 철갑소리인 듯 웅장하기도 하고, 湘妃가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인 듯 애잔한 소리를 낸다. 야부는 이처럼 큰 울림을 가진 대나무로 붓을 만들어 자신의 흉중을 표현해 내는 상상을 해본다.

(…) 원컨대 대나무 백 그루를 베어 큰 붓으로 만들어
흉중의 드넓은 운몽호를 쏟아내리
글이 완성되면 명산천에 주어
만고토록 조금도 스러지지 않게 하리니
풍우와 귀신도 어찌 뺏을 수 있으랴

(…) 願斬百竿爲巨筆, 直寫胷中雲夢濶.
辭成付與名山川, 萬古不磨秋毫末, 風雨鬼神何能奪.

그는 자신의 내면을 광대한 "운몽호"라고 칭하였다. 자기표현의 욕구, 문학을 향한 열망이 젊은 신유한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문장을 영원히 세상에 전하겠다고 웅장한 포부를 노래하였다. 문장을 명산대천에 주겠다는 표현은 사마천의 「太史公自序」의 "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를 인용한 것이다.[13] 사마천의 일화는 단순한 인용이 아니다. 신유한에게 사마천은 그의 삶과 문학에 있어 주요한 전범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는 비슷한 시기 지어진 「추회부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신유한은 사마천의 고향이었던 "용문"으로 자신을 명명하며 지나온 인생을 반추하고, 삶과 문학적 지향을 피력하였다.

용문생은 어릴 적 향인과 함께 예학에 노닐었다.[籩豆之游] 그가 칭하는 것은 공자와 육경이요, 그가 저술하는 것은 옛 성왕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입을 놀릴 때에는 고인을 거론하여 반드시 최고의 경지에 비견되려고 하였다. 향선생이

12) 申維翰, 「二十二日庚寅」, 『海遊錄』 下. "不佞與此君有素, 蓋於密州舊庄, 手植百餘竿, 竹下有泉, 曰青泉, 泉傍有澗, 曰綠湄澗, 皆取義於竹."
13) 비슷한 표현이 다음에서 확인된다. 申維翰, 「西河集序」, 『青泉集』 卷5. "不佞嘗讀太史公書, 夫夫固以彼其才, 落魄罹殃, 至欲述空言而藏之名山大川, 希覬夫不必然之境, 其叙致胡傷而志胡迂也. 夫人之不可恃如此, 吾不能及吾目而詔之, 奈何令幽竇中餘光買名聲於朽骨爲?"

그와 함께 앉으며 “이 아이는 박식하면서도 우직하니 세상에 한 번 쓰이지 않겠는가.” 하였다.

자라서 진사에 합격해서는 서울에서 서울 사람과 名聲에 노닐었다.[名聲之游] 그가 말하는 것은 국가의 옛 제도요, 그가 따랐던 것은 예악 형정이었다. 그가 그물을 펼치면 이익을 거두었다. 세금과 군사를 담당하는 일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점점 눈과 귀에 익혔다.

이때 한 경대부가 그를 특별히 대우하며 말하기를, “자네는 엄숙하고도 사리분별을 잘한다. 그러나 몰골이 파리한 것을 보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부질없이 달리는 말을 묶어 두었고, 바닷새를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도다. 자네여, 돌아가 쉬게나. 깨끗하고도 편안하게 거처한다면 자네의 이름이 빛나게 될 걸세. 자네에게 좋은 재주가 있다고 한들 그걸 사줄 사람이 있겠는가.” 하니, 용문생은 깜짝 놀라 마침내 저자에서 신발을 신고 들에서 고삐를 잡으며 열흘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14)

신유한은 25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9세에 생부상을 당해 밀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추회부서」가 바로 이러한 신유한의 삶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전제한다면 이 작품은 29세 이후, 늦어도 그가 문과 급제한 32세 이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용문생이라는 가공인물의 설정은 자신에 대한 자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데 더욱 유용하였다. 신유한은 향선생과 경대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서 높은 인정을 받을 만큼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여기서도 그의 재능을 “사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경대부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한양살이가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관로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음을 보였다.

---

14) 申維翰, 「抽懷賦」, 『靑泉集』 卷3. “龍門生, 少與鄕人, 爲籩豆之游. 其稱仲尼六籍, 其論著古先喆王, 其駕舌而當古人, 必以上駟方之. 鄕先生予之坐曰, 是兒博而愚, 闔胡嘗試於世. 及長而擧進士, 京師與國人, 爲名聲之游. 其說國家掌故, 其法禮樂刑政, 其設網而漁遺利. 非錢谷甲兵, 則刀筆筐篋, 卽稍稍耳慣而目親之. 時則卿大夫賜之色曰, 是人肅而辨, 然厥容癯, 有山澤想. 芒芒乎繫馬而止也, 御鳥而觴也. 歸休乎子, 子之居甚淨而逸, 其名嚼如也. 藉令鍾鼎乎爾, 寧詎能賈彼, 門生洒然異之, 遂屨及於市, 轡及於野, 十日而返於其鄕.”

형제처자는 길쌈하여 옷을 입었고 나물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고인의 서적을 좋아하는 것이 날로 심해져 책을 끼고 옛 역사가를 스승 삼아 집 뒷산을 '용문'이라 이름하고 자신의 호를 산인이라 하였다. 남들이 산인이라고 부르면 웃으며 대답하면서 그때마다 말하기를, '글이 여기에 있다.' 하였다. 이윽고 멀리 있는 자들은 듣다가 짜증을 냈고 가까이 있는 자는 입으로는 네네 하고는 문을 닫고 욕을 하였다. 하루에 그런 말들이 세 번이나 이르렀지만, 당시에 산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마을에 손중자가 있었는데, 홀로 산인의 풍모에 기뻐해서 폐백을 가지고 문인의 예를 청하였다.

"지난번 제가 산인이 도읍에서 일을 할 때 도읍의 인사들이 모두 입을 모아 뛰어나다고 하였지만 더 애쓰지 않았다고 들었고, 지금 제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비웃는데도 산인께서는 실망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거하면 같이 거하고 남들이 취하면 같이 취해야 하니, 거만한 자는 결국 부응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산인 밑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용문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司馬氏는 남쪽으로 禹穴을 찾고 북쪽으로는 秦城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천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문장으로 만들었으니 그 문장이 지금 천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山人께서는 여기에 견해가 국한되어 이름을 흉내 내는 것도 부족해서 그 말을 스승 삼고, 그 말을 스승 삼는 것도 부족해서 야트막한 언덕 하나에 살면서도 그 거처를 모방하였습니다. 가령 龍門이 저 사마천에 있어서도 저가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인데, 산인도 저 사마천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15)

낙향한 뒤 신유한은 집안의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古文, 그중에서도 『사기』 독서에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사마천의 고향을 따서 용문산인이라고 자호하며 자신의 문학적 지향을 밝혔지만 주변 사람에게서 조롱만 받을 뿐이다.

이후 자신을 찾아온 손중자와의 문답이 이어진다. 문답을 통해 세상과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방식은 東方朔의 「答客難」·楊雄의 「解

15) 申維翰, 「抽懷賦」, 『靑泉集』 卷3. "兄弟妻子縫纊而衣, 蔬食不厭, 然其自喜古人書日甚, 挾卷而師舊史氏, 卽以命舍後山曰龍門, 而自號爲山人, 人呼之山人則笑而應, 輒曰文在是矣. 旣而遠者憎於耳, 近者絀於口, 閉室而詬之. 一日而譽三至, 當是時, 山人未有對. 里中有孫仲子, 獨傃風而喜, 以脩脯先, 請執門人禮曰, 曩吾聞山人有事于都邑, 都人士幷舌而賢之, 而不加勸, 今吾見闤闠之集笑也, 而山人不少沮. 人居與居, 人取與取, 睢盱者卒不能勝鹽之者. 余不佞願爲山人役, 然龍門奚取焉. 昔司馬氏南探禹穴, 北極秦城, 以天下之美盡在己, 出而爲文章, 其文在天下. 今山人局觀於斯, 貌其名不足, 而師其言, 其言之不足, 一培婁而像其居. 侵假龍門在彼, 彼且有待也, 而山人欲待彼也耶?"

嘲」·韓愈의「進學解」등 說論 양식에서 유래한 것이면서[16] 실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손중자는 신유한의 문도 孫壽玄으로 실존인물이기 때문이다. 신유한이『사기』를 초선해서 그에게 준 글「書孫仲深史記抄」가『청천집』에 남아 있다.

손중자는 애써 세상과 불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임을 먼저 말하고, "용문산인"이라는 자호가 가진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신유한의 뒷산은 나지막하고, 천하를 유람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마천의 거처와 경험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신유한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 말이 끝나자 산인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속담에 있지 않은가? 구멍에 사는 벌레는 둥지에 사는 새를 보고 저보다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그대와 같다. 내 일찍이 논하길, 사해의 안이 중국이 되는데 夏后씨가 貢法을 쓰고 章亥가 걸을 수 있는 곳이니 탄환처럼 작다. 발해의 바닷가에 새가 있는데 그 등이 몇 천 리인지 모르고 그 날개는 천하의 반이 된다고 한다. 또 어떤 물고기는 7일이면 그 머리를 만나고 10일이면 꼬리를 만난다니, 그 길이가 비슷하지만 일찍이[새와 비교하면] 그 사이에 좁쌀도 되지 못한다. 仲尼가 박식한데도 남겨두고 의논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
> 나는 날마다 동해에 처하며 無何之游를 일삼으며 나의 집에 내가 거처하고 나의 거처에 내가 노닐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요한다. 이때 馮彝가 노를 맡고 海若이 밧줄을 맡아 蓬萊에 올라 夫桑을 둘러보았다. 경쇠를 치는 아름다움과 麻姑의 집과 黃帝의 옛 뜰을 보았다. 이에 내 하늘이 날로 넓어지고 내 용모가 날로 펴지며, 정신이 날로 방대해졌다. 돌아와 사마씨에게 비교하니 사마씨는 方內에 노니는 자이고 나는 方外에 노니는 자이다. 사마천은 한계가 있고 나는 한계가 없다. 이제 좁은 禹穴과 작은 읍인 秦城을 가지고 사마씨를 따르는 것은 지금 자네에게나 어울리네. 들은 것은 많지만 생각은 좁으니 문제로다. 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 노닐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17]

---

16) 가와이 코오조, 심경호 역,『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299면.

17) 申維翰,「抽懷賦」,『靑泉集』卷3. "語卒, 山人不豫曰 野語有之, 穴蟲見巢禽, 以爲莫此高. 其言猶女也, 吾嘗論四海之內爲中國, 卽夏后之所貢, 章亥之所步, 彈丸乎眇矣. 渤澥之涘, 有鳥焉, 其背不知幾千里, 其翼當天下之半. 有魚焉, 七日逢頭, 十日逢尾, 其脩似之, 而曾不能芥其間. 仲尼之博而存之不議者是已. 日吾處於東海, 爲亡何之游, 我屋我居, 我居我游, 逍遙乎無人之野. 于時也馮彝備楫, 海若司維, 登蓬萊歷夫桑, 觀於擊磬之休麻姑之室黃帝之故園, 吾天日廣, 吾貌日胖, 而神日益放. 反而求之司馬氏, 司馬氏游方之內者也, 吾游方之外者也, 彼以其有涯, 吾以其亡涯. 方且以禹穴之偪側而秦城之小邑, 邑於司馬氏, 今吾子匹之. 侈於聞而儉於

용문생은 사마천이 넓은 곳을 유람했다 하더라도 그 유람은 한계가 있고, 자신은 좁은 공간 안에 거처할지라도 상상의 유람을 할 수 있기에 한계가 없다고 답하였다. 사마천은 인식의 경계 안에서, 자신은 인식의 경계 밖을 노니는 자라고 정리하였다. "나의 집에 내가 거처하고 나의 거처에 내가 노닌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독자적인 삶, 문학을 확립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용문이라는 호를 굳이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사마천을 따르되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견 모순적인 답변은 어쩌면 신유한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손중자에게 주는 글에서 그는 불가에서 부처만을 유념하여 득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문장에 대해서 집중하여 그의 천기와 감응하여 眞을 획득할 것을 주문하였다.[18] 古에 근거하면서도 眞과 我를 향한 시선이 「추회부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추회부서」는 "용문"이라는 자호를 통해 자신의 문학 세계를 해명하는 글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삶 중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문학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해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신유한의 문학은 당대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문장의 전범을 선진양한의 산문, 離騷經, 唐詩, 명대 전후칠자의 문학에 두고, 그 문체를 학습, 모방하였다. 그의 문장은 당시 경화 문인과는 다른 색채를 지닌 것이었다. 경화 문인들은 이러한 그의 문장을 교정할 것을 충고하였다.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자서」에서 그는 자신의 기이한 문학이 편협한 성격과 도서가 부족한 지역 환경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자신의 문학을 해명하며 문학이

思, 病矣夫. 其斯之不信, 請且從我而游."

18) 申維翰, 「書孫仲深史記抄」, 『靑泉集』 卷6. "今子役吻於斯, 讀范蔡傳, 卽欲駕長鬚, 讀荊卿傳, 卽欲提匕首悲歌, 讀項羽紀, 卽欲喑嗚叱咤, 讀李廣傳, 卽欲彎弓射單于. 此又誰之使耶? 卽司馬氏之自爲至, 而亦不得自言其至者, 天機之所動也. 我且有知乎, 惡乎言於君? 有言乎, 惡乎使女知? 已乎已乎! 我與若同乎不知矣, 司馬氏亦同乎不知矣. 抑吾聞學禪者有願佛焉, 無口耳目, 無色聲香生死善惡之念, 而唯佛之念, 其神定則寂然而悟, 一超而上如來地, 彼其所觀者眞, 而亡待乎外也. 卽大雄氏得之, 以游於波羅蜜, 而吾與子得之, 以觀於司馬氏, 其斯爲會心印, 其斯爲象罔得也." 신유한 문학론에 대한 분석은 하지영, 「고문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식 —申維翰과 荻生徂徠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61집, 한국한문학회, 2016, 193-224면.

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도학은 도학일 뿐 자신이 말하는 문장은 다르다고 논박하였다.[19] 문학의 독자적인 가치를 주장하던 신유한은 문학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른다.[20] 신유한이 주목하는 문학의 가치는, 문학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효용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신유한의 논의는, 도와 문을 분리하고, 문학을 개인의 취향으로 이해하려는 18세기 문단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21]

「추회부서」는 삶에 대한 그의 시선도 담아내고 있다. 그는 지나온 삶의 여정을 籩豆之游-名聲之游-亡何之游로 술회하였다. 각각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는 삶, 세속적 명리를 좇는 삶,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亡何는 장자의 無何有와 동일한 의미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 명성에 구애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정신적인 유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신이 처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유희이다. 자신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벗어나 상상의 세계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구하려는 젊은 신유한의 의지가 느껴진다.

이처럼 "용문"은 젊은 신유한이 이상으로 여기는 문학과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라 하겠다. "용문"이라는 이름을 통해 신유한은 좌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잡아가고,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

19) 申維翰, 「自叙」, 『青泉集』 續集 卷2. "吾於此益信文字之功, 各有天稟, 臨川之執拗, 終不可爲雪堂之踈放."; 「與任正言論文書」, 『青泉集』 卷3. "天下有舍是而稱爲文者, 一曰儒家訓詁學, 亦有本源矣. 夫子作系易孝經, 以至曾思大學中庸, 誨人明理盡性. 所以諄諄焉命之者, 必用之乎者也等字得力, 使天下家行戶踐, 如菽粟水火, 是聖人設教之言, 而非吾所謂文也."

20) 申維翰, 「景雲齋與鄭生履寅讀書記」, 『青泉集』 卷5. "讀天下第一等書, 做天下第一等事, 爲天下第一等人. 敬甫色蹙若久之, 問何書何事可作如此人? 曰六經猶崑崙仰之彌高, 左穀班馬猶岱宗, 望之彌遠, 韻而爲三閭文園, 筴而爲荀卿賈傅, 屹然如五岳分峙, 天下皆誦法不衰. 吾願君琢磨斯藻奚斯, 以求當於古之作者, 彼夫唐宋諸君子裴亹成章, 各極其詣, 不越乎龜蒙覺繹而止. 獨不聞睎驥之馬, 亦驥之乘, 睎顔之士, 亦顔之徒乎?天下之進於是者, 爲伊傅管葛, 而其人與功, 皆在於所遘之世, 豈不見朱其輪者赤其族乎? 吾斯知富貴與功業, 在人而不在我, 惟文章不在人而在我, 在我者非本分與."

21) 박경남, 「兪漢雋의 道文分離論과 散文 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35-52면; 「18세기 文學觀의 변화와 '개인'과 '개체'의 발견(1)」,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109-141면;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소명출판, 2019, 93-161면.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2) 景雲, 내 삶의 귀결

신유한은 고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기존에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제자백가의 글에도 깊게 경도되었다.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山海經』, 『汲冢書』, 『黃庭經』, 石鼓文 등의 고문을 좋아하여 유가의 글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22] 그는 이를테면 마니아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독서가였다. 더구나 노년에는 『산해경』, 『穆天子傳』, 『神異經』, 『列子』에 나오는 신선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에 대한 독서를 만년의 즐거움으로 삼았다.[23]

그는 불교에도 심취하였다. 승려와 활발하게 교유하였으며, 불가의 도와 유가의 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24] 50대 이후로는 단순히 포용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불교에 크게 의지를 하였다. 55세 때 최성대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보낸 편지에는 『金剛經』만이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책이라 하였으며, 63세 무렵 서울에서 관직을 하며 셋방살이 할 적에는 『金剛經』, 『圓覺經』, 『維摩經』 등 불경을 쌓아놓고 읽었다는 기록이 보인다.[25] 신유한이 불교에 의지하게 된 것은 그의 방달한 사유가 통하는 지점이 있으면서도 이처럼 그의 불우한 삶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뛰어난 재주를 품었다고 자부하였지만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다."라는 불가의 가르침이었다.[26]

---

22) 申維翰, 「叙與尹太學士論文事」, 『靑泉集』 卷6. "盖余所見極狹而所好極偏, 雖古之斷章盡簡如山海經汲冢書黃庭石鼓之類, 亦貨而求之, 不喜讀儒家菽粟語."

23) 申維翰, 「東華雜錄跋」, 『東華雜錄』.

24) 연천 보개사의 염불계에 대한 서문(「念佛契序」, 『靑泉集』 卷4.)에서 신유한은 불경을 반복해서 염불하는 것을 통해 득도하는 방법이 유가의 학문 방법과 다르지 않음을, 아울러 중생을 개과천선으로 인도하는 불가의 정신도 유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당시에 부처의 신령에 힘입어 복을 구하는 행위는 불가의 원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25) 申維翰, 「尙古堂自叙後題」, 『靑泉集』 卷4. "癸亥秋, 維翰僦居都下, 尙古過而與之語, 見吾傍有金剛圓覺維摩諸書."

26) 申維翰, 「答悔軒鄭伯英書」, 『靑泉集』 卷3. "及讀金剛經釋迦有言, 一切世間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

도불에 대한 경도는 노년의 자술 문학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1750년, 신유한은 연일 현감에서 물러나 가야산 고화동으로 향하였다. 그의 나이 70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景雲齋라고 명명하였다. 경운은 바로 孤雲을 사모한다는 뜻이었다.[27] 가야산은 孤雲 최치원의 마지막 은거지였다. 그가 같은 지역 출신 명사이기 때문에 은거하는 길에 문득 떠올린 것만 아니다. 신유한은 젊은 시절부터 최치원을 깊이 경모하였다. 우리나라 문장은 오로지 최치원밖에 없다고 단언하였으며, 장년 이후로는 최치원이 살던 가야로 돌아가 은거하겠다는 결심을 종종 밝혔다.

"경운"이라는 자호는 조선 문인의 전통적 명명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현도 아니고 두보, 이백과 같은 중국의 저명한 문인이 아닌, 우리나라 문인을 사모한다는 마음을 편액에 담는 것은 당시로서는 더구나 영남에서는 낯선 일이었다. 영남 유학자 桐江 李溎(1701-1759)은 신유한에게 편지를 보내 '景雲'이 아닌 顔子를 사모한다는 뜻인 '景顔'으로 편액을 고칠 것을 권유하였다.[28] 답신이 없어 신유한의 답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신유한은 이곳에서 「景雲齋歌」, 「景雲齋偈」, 「題景雲齋」(이상 卷2), 「景雲齋與鄭生履寅讀書記」(卷5) 등의 작품을 지어 은거를 해명하고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었다. 특히 「경운재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왜 자신의 거처를 경운이라고 명명했는지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如電, 應作如是觀. 自得斯言, 便把好醜心懋羨心爭長護短心, 霍然消滅, 雲來是雲, 電過是電, 皆不容自我關念, 而握中只有平生手寫易詩書青牛白法山海經數卷." 도교, 불교에 대한 신유한의 관심은 심경호, 앞의 글, 2009, 59-89면 참조.

27) 申維翰, 「答金麟蹄書」, 『青泉集』 卷3. "來教中所見堂銘云者, 乃是靜觀三言偈, 而今旣改扁曰景雲齋, 地在伽倻山下, 寓慕於孤雲故也. 已將此名此意作爲歌詩, 傳示於崔士集崔聖可諸公, 凡於書尺封題, 不稱某官, 而但着齋號, 亦足一笑."

28) 李溎, 「答申周伯」, 『桐江遺稿』 卷1. "竊瞷足下, 非釋非儒, 煞有黃屋左纛, 自尊南越底意思. 請改扁額以晩醒者, 欲其末年有所歸宿於吾道也. 今聞改揭以景雲云, 崔孤雲豈不誠當世高士, 比諸孔 , 孟 , 顔 , 曾法門, 不知其落得幾百層. 朱子說云, 只據而今地頭, 便定脚跟做去, 便年八九十歲覺悟, 亦當據現在箚住做去, 尊等雖高, 其不及八九十者, 尙有一二十年光陰. 三間屋一蒲團, 靜坐用工者, 宜以本源眞實之地. 景雲又改以景顔, 則旣同於古人希顔之意, 尤爲暮年光華, 未知如何."

우뚝우뚝 겹겹 산봉우리
출렁출렁 옥 파도
명산 신령스러운 곳
이곳이 바로 가야
내 선사가 그리워
이곳 구름 등걸에 머물게 되었네
옛날 꿈에 만난 사람
반짝반짝 옥송이 같으니
신라 적 은둔한 이로
천년 동안 학을 타고 아침 놀 맛본다 하네
젊은 날 당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려
자금어대 향기 진하게 퍼졌네
황소를 향한 격문 말할 것도 없으니
붓 휘둘자 북두 별빛 찬란해졌지
박혁거세의 성은 탄환같이 작아
포의와 넓은 띠 두르니 근심이 어떻겠는가 (…)

皛皛叢甾, 滀滀瑤波. 名山靈境, 寔曰伽倻.
我懷仙師, 棲彼雲蘿. 昔夢邂逅, 燁如瓊華.
言是雞林遯世人, 千年騎鶴飡朝霞. 靑春觀樂仙李都, 紫金魚袋香紛拏.
黃巢片檄那足道, 筆開星斗光森羅. 赫居城闕彈丸小, 褒衣博帶愁如何. (…)

이 작품은 가야라는 공간을 공통분모로 최치원의 삶과 신유한의 삶을 차례로 교직한다. 가야산에 돌아온 신유한은 젊은 시절 꿈에서 만난 최치원을 떠올린다. 그는 신유한에게 삶의 전범이나 다름없었다. 문학으로 큰 인정을 받았으나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구속을 받았던 최치원, 그의 삶은 영남 출신 서얼 문사였던 신유한의 삶과 겹쳐진다. 또 중국에 가서 문명을 날렸던 최치원의 행적은 신유한이 평생 소망하던 꿈이기도 하였다.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 신라나 조선 땅은 작게 여겨질 뿐이다.

이어 신유한은 꿈에서 최치원이 우릉서, 신선의 서적을 그에게 주며 가야산에서 여생을 누릴 것을 권하였다고 한다. 그는 꿈을 꾼 뒤 고령으로 이주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과거 급제를 하고 일본 통신사, 지방관으로 떠돌면서 그와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평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가야산으로 돌아가 경운재에서 여생을 마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산은 분명하고 물은 푸른 것은 선사라
철벽은 문드러질 수 있지만 이름을 다하지 않았네
고금을 우러르며 길이 휘파람 부네
어찌 우화등선 하여 속세를 넘을 수 있으리
다만 원하는 것은 남은 세월 질병이 덜하길
학창의에 두건과 신발 신고 너울너울 가네
판향 한 자루에 노래를 마치니
어지러이 하는 어리석은 말 선사는 껄껄 웃으리

(…) 山明水綠是先師, 鐵壁可爛名不磨. 緬仰今古發長嘯, 焉能羽化超塵譁.
但願殘年少疾病, 鶴氅巾屨行傞傞. 瓣香一炷歌一闋, 癡言錯落師應呵.

이곳에서 그는 신선으로 승천했다는 최치원의 행적을 밟아나간다. 자신이 그의 자취를 따라 신선이 될 수는 없겠고 다만 바라는 것은 병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라 노래하였다. 최치원이 껄껄 웃는 마지막 장면으로 그와의 동질감을 고조시키며 시를 맺었다. 「경운재가」는 최치원을 통해 신유한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탐색하는 한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최치원에 자신의 삶을 포개놓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초월의 가능성을 꿈꾸었다. 이때 도교적 상상력은 신유한과 최치원의 삶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景雲齋偈」는 이곳에서의 일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기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노래를 시작하였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경화에 노닐었으나 이제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왔으니 가난을 달게 여기겠다며 결심을 밝혔다.

(…) 여섯 줄 거문고와 천 권의 책
책상 머리에는 벼루와 등, 아래에는 화로
유불도의 경전과 사서를 갖추니
주공과 공자는 스승이요 굴원과 가의는 동류일세
급총서와 산해경
아침 저녁으로 읽으니 심신이 즐거워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낚지 않고
모 심지 않고 김매지도 않네
아이는 쌀을 얻고 아내는 나물을 바쳐
배고프면 먹으니 병이 절로 낫네
의대는 느슨하고 몰골은 파리한데
종이와 먹을 잡고 포단에 앉아있네 (…)

(…) 六絃琴千卷書, 案頭硯燈下爐. 儒道釋經史俱, 周孔師屈賈徒.
汲冢簡山海圖, 朝暮讀心神娛. 不飮酒不釣魚, 不蒔蓺不耕鋤.
兒得米妾供蔬, 饑卽餐病自蘇. 衣帶寬形容臞, 操觚墨坐團蒲. (…)

신유한은 경운재를 유불도 사상이 구분 없이 어울려지는 곳으로 묘사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공자와 주공을 모시면서도 급총서, 산해경을 즐겨 읽는다. 또 술을 마시지도 낚시를 즐기지도 않고 포단에 앉아 문학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은자의 모습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실제 자신의 일상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운재에서 보내는 만년의 삶은 즐거움 그 자체이다. 마지막에서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표현되기는 하지만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담담하게 제어해 나갔다.(莫浪思徒煩紆)

이 작품은 「경운재게」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완연히 탈속적인 경지를 보여준다. 평소 그가 심취해 있던 불교적 사유가 도가적 사유와 함께 이 시기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운"은 도불적 사유에 근거해 최치원의 삶을 전범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명이다.

젊은 시절, "용문"이라는 자호가 현실의 이데올로기, 출세에 대한 욕망,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과 문학을 개척하겠다는 열정을 담았다고 한다면, 이 "경운"은 현실 세계에서 소외되어 "객"으로 존재했던 평생을 위로하고 삶의 귀결처를 찾고자 하는 노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두 명명은 사마천과 최치원의 삶과 문학적 전범에 근거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마천은 자신의 실제 삶과 이질적인 전범이었다고 한다면, 최치원은 실제 자기 삶의 현장에 보다 가까워진 전범이었다. 따라서 "용문"이라는

자호는 사마천과의 간극을 애써 극복하기 위한 현학적인 해명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경운”에서는 현실의 초월을 꿈꾸되 최치원과의 간극을 인정하는 자세가 드러난다. 양자의 차이에서 삶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 자체를 그대로 끌어안으려는 노년 신유한의 내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4. 결론

신유한의 자술 문학은 모순된 정체성을 가진 조선 후기 지식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흔들리는 자신을 견고하게 잡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자술 문학, 술회시에서는 “객”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대와 좌절 속에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길 위에 선 신유한의 초상을 보여준다.

신유한은 “용문”, “경운” 등으로 자신을 새로이 명명하면서 흔들리는 내면을 다잡고 삶과 문학적 지향을 확인해 나갔다. 독특한 것은 신유한의 이 명명이 사마천과 최치원의 삶과 문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유한의 자술 문학은 점차 구체성, 현장성이 확보되지만 여전히 외부인에 자신의 형상을 투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후 심노숭, 김려 등의 자술 문학과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학론에서 확인된바, 眞, 我로 향한 시선을 내장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전범을 버리지 못한 그의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신유한의 자기 명명은 기존의 사회적, 문학적 관념의 틀로써는 자신, 문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진지한 고민을 보여준다. 그의 명명은 주변의 비난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가 인식하는 자아, 지향이 사회적 인식과 충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용문”, “경운”이라는 명명은 “객”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시키려는 신유한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 참고문헌

『東華雜錄』(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申維翰, 「海游錄」, 『海行摠載』, 한국고전번역원, 1974.
_____, 「靑泉集」, 『한국문집총간』 200, 민족문화추진회, 1991.
李 瀷, 「桐江遺稿」, 『한국문집총간』 속78, 민족문화추진회, 2009.

가와이 코오조, 심경호 역,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박경남, 「兪漢雋의 道文分離論과 散文 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18세기 文學觀의 변화와 '개인'과 '개체'의 발견(1)」,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109-141면.
심경호, 「申維翰의 통섭적 사유방법과 문학세계」, 『漢文學論集』 제28집, 근역한문학회, 2009, 59-89면.
_____,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_____, 「일본의 자술문학 전통에 관하여」, 『民族文化硏究』 제76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9-50면.
이종호,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하지영, 「고문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식—申維翰과 荻生徂徠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61집, 한국한문학회, 2016, 193-224면.
_____,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소명출판, 2019.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Abstract】

Self-Image and Self-Naming in Shin, Yu-Han (申維翰)'s Autobiography

Ha, Ji-Young*

Shin Yu-han's autobiography demonstrates how an intellectual with paradoxical identity in the late Joseon period looks back on, consoles and holds together himself. In his autobiographical poems, the image of "wanderer" appears repeatedly, which portrays Shin as someone who cannot settle inside or outside amid expectations and frustration and stands on the road.

Shin newly named himself as "Yongmun (龍門)" or "Gyeong Un (景雲)," pulled his unsteady inner mind together, and reaffirmed his orientation towards life and literature. It is worth noting that Shin's self-naming is based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Sima Qian (司馬遷) and Choe Chi-won (崔致遠). Shin's autobiography gradually ensures specificity and presence, but its limitation is that it still projects his image to outsiders, which can be described as his difference from the later autobiography of Sim No-sung (沈魯崇) or Kim Ryeo (金鑢). As demonstrated in literature theory, his attitude that he cannot give up the norm while he still has a perspective towards authenticity (眞) and self (我) is observed in the attitude in which he treats his life.

Nevertheless, Shin's self-naming demonstrates his serious concern that his self and literature cannot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social and literary framework. His self-naming invited criticism from those around him, which implies that the self and orientation he perceives conflicts with social perception. Naming himself as "Yongmun (龍門)" or "Gyeong Un (景雲)" reflects Shin's commitment that he tries to move away from identifying himself as the "other" and establish himself as the agent.

Keywords: Autobiography, Autobiographical poems, Shin Yu-Han (申維翰), Self-image, Choe Chi-Won (崔致遠).

접수일: 2019.01.01.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Visiting Professor, Daeyang Humanity College, Sejong University.